

## 世界の農業地域システム

農業地域システム 研究會編

229면 日本 東京, 大明堂, 1991. 9. 26

최근 세계의 농업정세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그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UR라운드의 타결로 인하여, 1990년대의 새로운 국제무역의 질서가 수립되고, 그 속에서 세계각국의 농산물도 '例外없는 關稅化 措置'에 의하여 자유로운 수출입이 행해지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세계의 여러나라에서는 자국의 農産物에 대한 보호와 國際競爭力 강화에 온힘을 기울여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볼 때에, 세계 여러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農業地域の 實態와 그 特色이 어떠한지를 파악해 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여기에 紹介하는 「世界の農業地域システム」은 바로 그 실례를 파악할 수 있는 圖書라 할 수 있으며, 著者들은 日本의 中堅地位에 있는 農業地理學者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圖書가 나오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1986년 “日本地理學會”속의 “農業地域시스템 研究會”가 發足되면서이다. 이 研究會는 약 6년간에 걸쳐 각회원들의 地域調査, 學會報告 및 意見交換 등을 거듭해 왔는데, 본 圖書는 그간의 研究成果이며 각 회원들의 論文을 토대로 하여 엮어진 것이다. 전체구성은 11장으로 되어 있다.

1장에서는 세계농업의 多樣性과 重要性에 대해서 정리한 후 농업지역 시스템의 목적과 구분방법, 세계의 농업지역 구분을 위한 規準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또한 세계의 농업유형을 다루고 있는데, 과거에 행해졌던 사례를 크게 두가지로, 즉 휘틀지와 그의 후계자에 의한 구분, 경제형태에 의한 구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의 농업유형에 대해서는 유목 및 반유목, 기업적 목장경영 등을 포함하여 모두 19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다.

2장의 중국의 농업지역에 있어서는 농업지역구분과 함께 副題에도 나타나 있듯이, 주로 황토 고원의 상업적 작물생산의 확대과정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필자는 최근 중국의 농업생산책임제의 도입이 人民公社의 해체를 촉진시켰고 중국전체의 농업생산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파악하고 있다.

3장에서는 동남아시아의 농업형성과정을 개략적인 시기로 나누어 설명하고 사례지역으로서 인도네시아를 선택하여 농업의 형성과정, 농업생산현황, 농업지역구분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4장은 전조사막이 넓게 차지하는 서아시아의 지역중 도르코를 사례로 분석한 내용이다. 도르코 농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아홉개의 농업지역의 특성과 각 지역의 특징, 그리고 도르코 중앙남부지역중 두개의 촌락을 사례로 한 농업지역의 생태를 주제로 하고 있다.

5장에서는 마그레브(Maghreb-아라비아語로 “서쪽의 끝”을 의미함) 3국인 튀니지아, 알제리, 모로코를 대상으로 각국의 독립후에 전개되는 농업의 특성을 주제로 삼고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앞장에서 거의 일률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농업지역구분은 생략하고 농업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과 최근의 문제점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다.

6장은 한국의 故 朴東源 教授와도 친분이 두터운 岐阜大學의 小林 浩二(고바야시 코오지)教授의 논문이다. 著者는 舊西獨의 장기간 유학을 계기로, 독일의 農業과 農村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정통한 日本人의 한사람이며, 이미 그는 「西유럽의 自然과 農業, 1986, 大明堂」 「변모하는 西獨의 都市와 農村, 1990, 古今書院」 그리고 書名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舊西獨의 근교농업지역의 특성을 다룬 「都市와 農業의 共存, 1992, 大明堂」이란 專門書들을 집필했다. 이렇게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舊西獨의 근교농업지역에 대한 농업경영의 특성과 존립기반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7장은 혼합농업지역의 변질과 分化란 副題하에서 캐나다 농업의 형성과 지역차를 서론부분으로 이끌어 놓고 사례지역인 온타리오 남부지역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의 특징과 최근의 변화과정을 다루고 있다.

8장에서는 미국농업의 개관적 파악과 함께 농업지역중에서도 가장 先進化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 지역의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흔히 우리는 미국의 농업은 다양하면서도 복잡한 面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듯이 필자는 미국 농업지역의 형성요인을 자연환경, 역사적 프로세스, 기술혁신, 농업정책 그리고 경제적 프로세스로 나누어 설명하고 캘리포니아 지역의 농업을 통해서 미국농업의 전체를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9장에서는 원시적 자급농업지역과 기업적 방목지역이라는 남아메리카의 대표적인 두가지 형태의 농업을 전체로, 안데스 산맥의 농업지역과 아마존강 범람원의 농업지역, 그리고 브라질 북동부 내륙부의 농업지역의 특성에 대해 논하고 있다.

10장은 상업적 목축의 대명사격인 뉴질랜드의 농업에 관한 내용이다. 본 논문에서는 뉴질랜드 농업의 형성과정을 초지농업도입기, 초지농업확립기, 초지농업발전기, 초지농업성숙기, 초지농업재편기로 구분하여 논한 다음 농업지역의 유형과 그것에 대한 성립기반을 중점으로 서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1장에서는 지리학에 있어서의 농업지역 시스템에 관한 분석시점의 중요성을 기술하고,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評者의 입장에서 각 장별 내용을 요약해 보았다. 전체적인 구성과 사례연구지역으로서 각국의 선택기준 등에 있어서는 애매모호하고 불확실한 점도 발견되나, 이들지역으로 직접 조사하러 가거나 방문할 기회가 별로 없는 입장에서 본다면 한번은 精讀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農業地理學과 農村地理學에 관심을 두고 있는 研究者들에게는 반드시 권해보고 싶은 圖書중의 하나이다.

(동국대 강사, 정 광중)

## 社會地理學

芮庚熙 編著

402면 청주대학교 출판부 1994. 7. 30

본서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사회지리학의 발달, 본질, 연구동향 등을 살펴보고 사회지리학은 사회의 호감이 가는 자원(재화, 서비스, 시설)의 부족과 불균등 분포의 사회-공간적 산물을 연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서술되었다. 활발하게 취급된 논제는 공간, 패턴, 전개과정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 등이다.

그리하여 본서는 사회지리학의 내용을 소개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이슈나 방법론, 개념적인 틀에 중점을 두어 그것을 이해하는 방편으로 내용을 제시하므로서 사회지리학의 요론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인문지리학 전공자와 도시사회학, 도시학 등 도시와 도시문제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사회지리학의 안내서 구실을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편집부)